

마태복음 1:1-17

- 1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1 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 12:1-3)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삼하 7:12-16)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다윗에게는 그의 집과 나라,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따른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잇는 통치자로 오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으로 ‘예슈아’, ‘여호수아’ (Yeshua/Yehoshua, Joshua) 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며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 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며, “기름부음 받은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마태복음 1 장 17 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14 대씩 나누는데 처음 14 대는 다윗 왕까지입니다. 이 당시의 계보라면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계보 안에 4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다말, 라합, 룯 은 이방 여인이며 특히 라합의 배경은 창녀이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됩니다.

-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 8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 11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 역대하 21 장부터 26 장을 보면 요람 (여호람) 부터 웃시아 사이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여호사밧 - 여호람 - **아하시야** - **요아스** - **아마사** - 웃시아) 마태복음에는 빠진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낳고” 라는 말이 실제 아버지라는 의미보다는 선조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14 대라는 말은 실제로 14 대씩 나누어 진다 라는 의미보다는 마태가 14 대씩 인용을 하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4 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이름 자음을 숫자로 환산하는 “게마트리아” 관습에 따르면 다윗의 이름 자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14 가 되고, 다윗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4 대 라는 사실에서 인용되었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 계보에 나오는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므낫세) 있습니다. 예수님 계보에 여러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12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17 그러므로 그 모든 대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이다.

- 스룹바벨은 여고냐 (여호야긴)의 손자인데,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사람들의 첫 그룹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역대상 3 장 10-20 절의 계보 참조. 스룹바벨 이후 아비훗부터 야곱에 이르는 계보는 역대상,하에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계보입니다.
-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설명하는 부분인 16 절에서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버지 계열에서 태어나는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보에서 “낳고” 라는 말의 헬라말은 “겐마오” 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다른 대목에서는 이 동사의 능동형이 사용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는 수동형이 사용됩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태어나시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간섭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